

지역경제와 지역대학: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Local Economy and Local Universities: Focusing on the Job Creation*

김 선 재
배재대학교

Kim Seon-Jae
Pai Chai Univ.

요약

높은 청년실업은 오늘날 여러 곳에서 갖가지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청년고학력자들의 실업문제와 관련 지역대학의 역할과 활용에 대하여 분석하고 청년고학력 실업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 서론

2018년 새해 들어서도 청년실업률은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작년 말에 이어 새해에도 10%에 육박하고 있으며 실제로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20%대를 넘어서고 있다. 이 같은 높은 청년실업은 오늘날 여러 곳에서 갖가지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청년고학력자들의 실업문제와 관련 지역대학의 역할과 활용에 대하여 분석하고 청년고학력 실업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청년실업문제의 주요 이슈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은 결코 단순하지 않은 우리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조명하고 풀어야 할 난제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일자리의 부족에 있다.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청년고학력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의 부족이다. 혹자들은 쉽게 말한다. 청년취업자들이 중소기업으로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고. 그러나 현실을 보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임금격차, 노동환경, 복리후생 등등. 과연 이들의 눈높이만을 탓할 수 있을 것인가? 사회는 이미 그들이 생각하는 기대치 이상의 수입과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일자리가 아니어서는 결혼과 함께 미래의 가정을 꾸리는 일이 불가능한 현실이 되어버렸다.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결합된 결과로 나타난 청년고학력자들의 실업문제를 단순하게 하나의 요술방망이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인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차근차근 내실 있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 같은 방식의 일환으로 정부가 선도적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긴 시차와 함께 정부주도형 정책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III. 대학교육과 일자리: 이론적 배경

교육과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Romer(1990)와 Jones(1995)에서 제시된 표준적인 신고전학과형 내생적 성장모형을 따르며 다음과 같은 Cobb-Douglas 생산함수로부터 출발한다.

$$Y = T(LED + LOT)^{\alpha}K^{1-\alpha} \quad (2)$$

여기서 Y=총산출, T=기술파라메타, 그리고 총노동(L)은 LED =교육과 LOT =여타노동으로 분리하여 나타내며 K=자본을 각각 나타낸다. 그리고 α 와 $(1-\alpha)$ 는 노동과 자본의 요소소득배분율을 각각 나타낸다. 또한 여기서 T는 기술진보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솔로우 잔차(Solow Residual) 또는 총요소생산성(TFP)으로 알려져 있다. 생산성 성장에 있어 교육자본의 기여는 체화되거나 혹은 비체화되어 있다. 체화접근법에 의하면 교육은 모든 요소투입물을 비례적으로 좀 더 생산적으로 만드는 즉,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에 의해서 생산성 성장에 기여한다. (2)식으로부터 총요소생산성(TFP)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TFP \equiv Y/(LED + LOT)^{\alpha}K^{1-\alpha}=T \quad (3)$$

1) 총요소생산성(TFP)은 전체 생산요소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로서 1942년 J. Tinbergen이 기본모형을 제시한 이후 Solow(1956) 및 Kendrick(1961) 등에 의해서 구체적인 측정모형이 개발되는 등 연구가 활발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5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4A01036638).

생산성은 총산출에 대한 총투입물의 비율로 나타내는 까닭에, 그리고 교육도 하나의 투입물로 간주됨에 따라 우리는 교육의 증가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교육은 여타 형태의 요소투입물보다 좀 더 생산적이라 할 수 있기에 기술진보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체화된 기술진보를 다음과 같은 생산함수로 모형화 할 수 있다.

$$Y = T[\varphi L + (1+\varphi)LED]^\alpha K^{1-\alpha} \quad (4)$$

여기서 φ 는 여타노동에 대한 교육의 초과 생산성(파급 또는 외부효과와 같은)을 측정하는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LOT에 (L-LED)를 대입한 후, 식을 다시 정리하면 교육(LED)의 배분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Y = T[L(1 + \varphi(LED/L))]^\alpha K^{1-\alpha} \quad (5)$$

양변에 로그를 취한 다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ln Y = \ln T + \alpha \ln L + \alpha \ln(1 + \varphi \nabla ED) + (1-\alpha) \ln K \quad (6)$$

여기서 $\varphi \nabla \equiv (LED/L)$ 로서 총노동에 대한 교육의 배분을 나타낸다. 그리고 총요소생산성(TFP)과 노동생산성은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n TFP \cong \ln T + \alpha \ln(1 + \varphi \nabla ED) \quad (7)$$

$$\ln(Y/L) \cong \ln T + \alpha \ln(K/L) + \alpha \ln(1 + \varphi \nabla ED) \quad (8)$$

식(8)은 $\alpha > 0$ 그리고 $\varphi > 1$ 조건을 만족하는 한 교육의 한계생산은 양(+)이 된다. 즉, 교육이 여타 노동보다 더 생산적이면 교육의 증가는 총요소생산성(TFP)을 증대시킴을 의미한다. 식(8)은 노동생산성은 노동1단위당 자본량(K/L)과 총자본스톡에 대한 교육의 배분율에 의존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교육자본이 심화되는 한 노동생산성은 감소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은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함과 동시에 제품과 생산과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교육의 양적, 질적 증가는 곧 생산성 증대를 유도하게 되며, 이는 1인당 실물 자본의 한계수입 감소분을 상쇄시키고도 남는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오늘날과 같이 노동의 증가가 부진한 상황에서 교육자본의 빠른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진 교육자본의 단위당 증가는 한계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고 이것은 인구1인당 물적 자본 수익률의 감소를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의 증가로 인한 인적자본의 질적 증가는 새로

운 재화와 서비스생산의 생산의 증대를 가져와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기초 및 응용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연구지원 정책을 추진을 통하여 인적자본을 축적함과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공급자로서 지역대학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기대도 만만찮은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악화된 기업 환경과 최근 들어 단행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은 아우성이고 이로 곧 근로인원 감축으로 이어져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청년근로자들이 실업에 내몰리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방법 중에 하나는 검정되고 자격 있는 지역대학들을 적극 활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청년고학력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지금 지역대학들은 오랫동안 계속된 등록금 동결과 함께 곧 닥쳐올 입학생 급감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이 같은 위기에 처한 지역대학들을 일자리 창출의 허브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대학과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가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많은 연구에서 지역대학이 지식창조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을 위해 지식을 응용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집약기업들을 창출하고, 또한 이를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다. 즉 지역대학들은 산학협력의 과정에서 창조된 지식을 지역기업에 확산 이식시킴으로서 기업들의 이윤창출을 유도하게 되고, 이는 다시 기업들의 투자 여력 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청년고학력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에 이들 지역대학에서 활발한 지식 창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기초 및 응용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연구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보다 과감한 지원이야말로 지역의 지식집약 기업 창출과 함께 청년고학력자들이 기대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지역대학과 지역경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순환 고리를 만들어 주게 될 것으로 본다.

■ 참고 문헌 ■

- [1] 김선재·이영화·임광혁(2010). “인적자본형성으로서의 교육투자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OECD 비영어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3호, pp.315-325.
- [2] 신태영(2004),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정책자료 2004-04, 과학기술정책연구원.